

추위에 강한 식물과 빙기의 생존자

구시로에서 볼 수 있는 식물종 중에는 최종빙기의 한랭기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홋카이도로 퍼진 식물종이 있습니다. 이 종들의 대부분은 보통 산악지역에서 발견되지만, 구시로 습원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. 구시로 습원의 시원한 기후와 여름철 이 지역을 뒤덮는 잿은 안개가 그 이유입니다.

습원의 꽃들

여름 동안 구시로 습원에는 구시로꽃고비(학명: *Polemonium caeruleum* subsp. *laxiflorum* var. *paludosum*)의 가련한 보라색 꽃이 곳곳에 핀다. 구시로꽃고비는 플록스의 일종으로 홋카이도 북쪽의 사할린섬에서 서식하는 아종의 변종입니다. 빙기에 홋카이도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꽃냉이(학명: *Cardamine pratensis*)는 홋카이도 동부의 습원에서 많이 번식합니다. 이 식물은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 일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꽃냉이도 최종빙기 때 홋카이도에 퍼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.

신비적인 마리모

마리모는 담수조의 일종(학명: *Aegagropila linnaei*)이 희귀한 구형으로 성장한 것입니다. 이런 실 형태의 녹조류는 물의 움직임에 따라 구형으로 자랄 수 있으며, 지름 30cm 까지 자라기도 합니다. 실 형태의 녹조류는 구시로 습원 주변부에 있는 시라루토로호와 도로호에서 서식하지만, 구형 마리모는 구시로 북부의 아칸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.